



## 네팔 카스트 제도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변화\*

김창수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네팔의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비록 카스트 제도가 1963년에 불법임이 천명되었지만 아직 경제적, 교육적, 보건 위생적,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카스트 계급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업도 크게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교육이 법에 의해 카스트와 관계 없이 열려 있고 무상으로 기본 교육이 제공되지만 낮은 카스트 계급은 교육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육 수준은 소득 차이로 이어지는데, 낮은 카스트 계급은 비농업 수입과 해외로부터의 송금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에 비해 건강 정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빈곤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나쁜 건강상태가 다시 소득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변화의 측면을 보면 카스트 제도의 차별과 부정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카스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하고 있으며 불리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고 기독교의 종교인 힌두교를 대신해 기독교를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카스트, 네팔, 차별, 교육, 소득]

\* 본 연구는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203).

## I. 서론

카스트라는 말은 포르투갈어 카스타(Casta)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계 각지의 정교하게 고착화된 신분질서 제도를 지칭하는 학술적 일반명사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들 수 있고, 네팔도 인도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카스트 제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관계 없이 그 부모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그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제약과 불평등이 양산된다. 원래의 카스트 제도에 의한 불합리와 불평등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식민지 정책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인데, 영어로 교과 과정이 짜여진 식민지 교육은 상위 카스트에 대해 더 큰 사회적 위신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카스트 사이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Borooh & Iyer, 2005).

카스트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196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추가적으로 1990년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면서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이 불법임을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Mainali, Jafarey, & Montes-Rojas (2017)는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아직 카스트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엄연히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낮은 카스트로 출생한 아이들은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생적 불리점과 차별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Deshpande, 2011; Thorat & Newman, 2010). 특히 인도의 경우 가장 낮은 계급(Dalit)에 대해 요구되는 불가촉성(untouchability)은 불법이지만 현실은 법과는 매우 다르다. Dalit들은 마을 외곽의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통상 남쪽 외곽에 거주하는데 그 이유는 힌두교의 죽음의 신인 Yama가 사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Sainath, 1996).

본 연구는 인도와 유사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네팔을 대상으로 카스트 제도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네팔에서 카스트 제도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아직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는 카스트 제도가 완고하기는 하지만 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어서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네팔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표본의 수집과 구성 및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 II. 네팔의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어떤 사람의 출생과 동시에 사회적 계급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계급간 이동성이 제한되며 직업이나 재산 및 권리가 해당 계급에 맞게 한정되는 사회 체계이다. 이는 그 사회의 역사, 종교, 문화와 관련되어 복잡한 양태로 나타나며, 출생, 인종, 직업, 권한, 재정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이 속한 가정의 재산, 권력, 영향력, 직업, 인종, 교육 수준, 가계 등의 상황에 따라 그 개인과 그 후손의 미래 직업, 소득 수준, 교육의 정도, 생활 형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영향력이 제한된다.

카스트 제도로 잘 알려진 국가는 인도인데, 네팔도 인도-아리안(Indo-Aryans) 족으로부터 유래한 힌두교 카스트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92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03개의 이질적 인종과 집단을 분류한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나 크게 보면 Varna 라고 불리는 4개의 주요 카스트 분류가 있다 (Dave, 2017).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민(Brahmin)이고 가장 낮은 계급이 수드라(Shudra)이며 각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 성직자나 학자 등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직업은 브라민의 몫이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업이나 공업에 해당하는 직업은 낮은 카스트의 몫이다.

〈표 1〉 네팔의 카스트 제도

카스트 명칭	사회적 역할	전형적 직업
브라민(Brahmin)	교육과 힌두교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	성직자, 학자, 교육자
체트리(Chhetri)	사회 제도와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	군인, 행정부 수반, 왕
바이샤(Vaishya)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	상인, 농부, 목축업자, 장인
수드라(Shudra)	육체 노동과 관련된 일	노동자, 장인과 서비스 제공자

이러한 대분류 카스트에 부가하여 더 세부적으로는 36개의 카스트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흔히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Dalit과 물을 같이 쓸 수 없는 Newari 등이 포함되어 있다. Dalit은 scheduled caste와 scheduled tribe를 포함하는 집단이며 인도인구의 17.5%를 구성한다 (Borooh & Iyer, 2005).

공식적으로 위법임을 천명하였지만 여전히 카스트 제도는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Dave (2017)는 네팔의 카스트 시스템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상당한 정도로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1991년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96,977명이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 Dalit 카스트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3.1%인 3,034명이었다. 이는 Dalit 카스트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치이다 (Gurung, 2005).

### Ⅲ. 기존연구

카스트 제도는 다양한 측면과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Banerjee-Dube(2014)는 인도를 대상으로 Dalit과 그 이하의 카스트 계급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는데, 카스트 제도를 인도에만 고유한 사회적 차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카스트와 인종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포함하여 차별이라는 공통된 현상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카스트 제도를 포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Jodhka (2016)도 카스트 제도를 과거 힌두교의 종교적 전통과 믿음으로부터 발생된 특

수한 형태의 차별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현대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종식되고, 계급에 근거한 폐쇄적인 사회 질서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근거하여 계층화가 되는 현대적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의 곳곳에는 차별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이러한 차별을 이해하는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카스트 연구 논의의 관점의 확장에 대한 이들의 논문과 달리 대부분의 연구들은 카스트 제도의 고착화 내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카스트 제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한 학자로 Myrdal(1968)을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카스트 제도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 폐해를 비판하고 법으로 금지하여도 전통에 너무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불가촉천민과는 서로 접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들이 만지거나 생산한 물건들은 다른 카스트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은 격리되어 생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가촉성에 근거한 관행은 지속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생활에 만연되어 있다.

Myrdal(1968)에 의하면 카스트 제도의 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스트 윤리는 손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이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고 노동을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다. 둘째, 권한이 카스트에 따라 매우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불공평이 뿌리 깊이 고착되어 있다. 상위 카스트 집단은 하위 카스트 집단의 상향 노력을 저지한다. 셋째, 직업적 사회적 이동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려 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고 비전통적인 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제 생활에서 경쟁이 없고 효율도 없다. 이로 인해 카스트 제도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러한 Myrdal의 견해에 대해 Madan(1969)은 일찍이 Myrdal의 분석이 지나치게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경도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Myrdal이 카스트 제도는 완전히 고착되어 있고, 이를 구성하는 집단간의 관계가 매우 호전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Madan은 이러한 긴장된 사회는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와 같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시스템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사실 문헌에는 서로 다른 카스트나 인종 사이에 다양한 협업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Naregal(2010)은 지역 극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더 상위의 카스트가 더 하위의 카스트와 문화적으로 협상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상위의 카스트 문화가 하위의 카스트 문화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는지를 공식적, 조직적, 이념적 조종(manipulation)의 관점에서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Bros(2014)는 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여 인도인들의 사회적 지위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카스트는 소득, 교육, 직업과 함께 아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편견이나 차별의 장기적인 내재화가 어떻게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가를 보여 준다. 즉 결핍과 차별은 부분적으로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재화한 축소된 자아상 때문에 발생한다.

Borooah & Iyer(2005)는 인도에서는 Vidya(교육), Veda(종교), Varna(카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순등록율이 힌두교, 이슬람교, Dalits 사이에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도 소년과 소녀에 따라 차이가 남을 발견했다. 각 집단의 소년과 소녀의 등록율을 보면, 힌두교 84%:68%, 이슬람교 68%:57%, Dalits 70%:55% 이어서 전체적으로 힌두교 집단의 등록율이 높고, 남아들의 등록율이 여아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alit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확률이 낮고 (Anitha, 2000), Dalit 이 아닌 집단에 비해 Dalit 아이들의 중퇴율이 17%나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일관성이 있다 (Jabbi & Rajyalakshmi, 2001).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인도 국민이 노상에서 변을 보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노상에서 변을 보는 사람들의 60%에 해당한다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2012). 노상에서 변을 보는 행위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아 사망의 원인이고 생존한 아이들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Spears,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Lamba & Dean (2013)은 인도의 변기 사용이 낮은 이유를 검토하였는데, 정부의 위생정책이 카스트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인도 정부는 청정마을상(Clean Village Prize)을 시행했는데, 이는 노상에서 변을 보는 행위가 근절된 마을에 대해 거액의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이다. 또한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낮추기 위해 마을의 의장은 하위의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낮은 카스트의 의장을 둔 마을이 상을 받을 확률이 낮고 따라서 낮은 카스트의 의장을 둔 마을의 변기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위의 제도가 인도 농촌지역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Spears, 2012), 개선의 정도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카스트 제도가 더 나은 위생 환경으로 가는 길을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Bathran, 2011). 카스트는 소위 '불가촉성(untouchability)'과 오랜 동안 관련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주로 노상에서 변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네팔은 과거 20년간 빈곤을 줄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네팔의 국가가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율이 1996년 42%, 2005년 31%, 2011년 25% (CBS, 2011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1/4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Wagle(2017)은 1996-2011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네팔의 빈곤 상황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빈곤율은 17% 정도이고, 인구의 80%는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가 이를 탈출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로를 보이는 매우 동적인 빈곤 현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원주민 Janajatis와 낮은 카스트의 힌두교 사람들이 가장 높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실업률을 보였다. 인적자본과 가계의 자산이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카스트 제도로 인한 불리함은 주로 Janajatis 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Wagle은 방법론상의 흠결과 적은 표본수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Montes-Rojas, Siga, & Mainali (2017)도 네팔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0년 국가생활수준조사(National Living Standard Survey; NLSS)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Wagle과 유사하게 많은 차별이 하위 25%의 카스트 집단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임금상

가장 차별을 받는 사람들도 최하 25%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유사한 관점에서 Mainali, Jafarey, & Montes-Rojas (2017)도 2003년과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네팔의 카스트 제도를 연구하였는데 카스트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금의 결정 요인은 인적자원의 정도, 네트워크의 연결성, 기업의 규모 등이다. 특히 낮은 카스트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계속 보수가 낮은 직업에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차별 금지 정책이 카스트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였는지에 대한 결과는 혼합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카스트 제도의 고착화와 이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경제, 교육, 보건,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카스트 제도가 계속 고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견고함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주제는 기존 문헌들에서 연구가 거의 다루지 않은 주제로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이다. Borooah & Iyer(2005)는 모든 인도 학교의 6-14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순등락율이 종교(힌두교 또는 이슬람교)나 카스트와 같은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비공동체적 요인이 중요한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부모가 문맹이 아닌 경우와 같이 학생들에게 우호적 환경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낮으나, 덜 우호적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견고한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교육 등을 통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ros(2014)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경제적 속성의 향상이 사회의 낮은 카스트나 부족(Scheduled Caste 또는 Scheduled Tribe)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낮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열등한 인지 부담을 상쇄시켜줄 가능성을 제시한다.

Jodhka(2016)는 아직 세계의 곳곳에는 차별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카스트 제도를 과거 힌두교의 종교적 전통과 믿음으로부터 발생된 특수한 형태의 차별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현대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종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가 순수한 보편적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급에 근거한 폐쇄적인 사회 질서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근거하여 계층화가 되는 현대적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카스트 제도는 덜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2를 검토하기 위해 카스트의 차이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가족의 수, 해외로부터의 송금 수입, 종교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Borooah & Iyer(2005)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카스트 제도를 우회하려면 이러한 제도가 없거나 약화된 외국에 나가서 소득활동을 하면 된다. 따라서 카스트 제도가 덜 고착화되고 있다면 낮은 카스트의 가정일수록 외국에 가는 제약조건이 극복된다면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가 더 많고, 이들로부터의 송금 수입의 중요성이 더 높을 것이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기득권에 유리한 종교보다는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덜 하는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이다.

## IV. 표본

### 1. 표본지역

본 연구는 네팔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거시적인 2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현장의 주민들에게 수일 간 종합적인 설문 조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좀 더 생생한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 및 폐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네팔의 Tikapur 지역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출하였는데, 해당 지역은 네팔 중에서도 극서 지방에 위치하여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는 또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네팔 정부의 상호 이해와 협조 기반에서 네팔이 빈곤과 위생 관련 UN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 사업의 명칭은 ‘Health Services Improvement Project in Tikapur (HIT)’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 2. 24-28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의 전임연구인력인 3명의 박사를 투입하여 네팔 Tikapur 지역 중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어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사업 참여 교수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가구정보, 보건의료, 주거환경, 교육, 사회적자본, 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문지를 디자인하였다. 네팔은 지역을 Ward와 Tole로 구분하는데 Ward는 마을 또는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Tole은 세부단위인 cluster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Ward #9 (block no. 29, 30, 32, 33)에서 Jyotinagar, Samitipur, 산업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1, 4, 6번 Ward를 선정하였는데 Ward #1에서는 Pathraiya, Jabalpur Tole, Ward #4에서는 Bhokshi Tole, Ward #6에서는 Jagatpur, Bhakraiya, Swarnapur Tole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Tole 안에서 각 가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 2. 사용변수

본 논문에 사용되는 변수는 Tikapur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부터 도출하는데, 조사 대상 지역의 경제적, 교육적, 보건 위생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포괄한다. 네팔에는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4개의 주요 카스트 계급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 포함된 카스트는 Janajati, Shudra, Chhetri,

Brahmin 이다. Janajati 는 비카스트(non-caste), 비힌두(non-Hindu) 부족인데 네팔의 정치 지형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Dalit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된 원주민 부족이다. 본 논문의 응답자들은 Janajati 가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표 2〉 변수의 정의

이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정의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 의료적, 사회적 측면의 변수들을 포괄한다.

지역	농촌 = 0, 도시 = 1	
마을	마을 번호(Ward Number)	
가족수	지난 12개월동안 집에서 함께 숙식한 가족의 수	
외국가족수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의 수	
송금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연간 송금수입	
카스트	사회적 신분 등급   1 (최하) ~ 5 (최고)	
최고학력	최종 교육 연수	
문맹여부	1-읽고 쓸 줄 안다, 0-읽거나 쓰지 못한다	
교육투자	양의 최고학력과 그 평균과의 차이	
구직여부	1 - 직업이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0 - 그 외	
전업농부	1 - 전업 농부, 0 - 그 외	
비전업농부	1 - 비전업 농부, 0 - 그 외	
소득	연간 비농업소득 (단위: Rs/년), 100,000Rs로 나누어 표준화함.	
건강	몸과 마음의 전체	1-매우 나쁨, 2-나쁨, 3-평균, 4-좋음, 5-아주 좋음 적 건강 상태
음주	지난 30일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날의 수	( ) 일/달
흡연	하루에 피는 평균 담배 수	( ) 개피/일
체중	인식된 몸무게	1-매우 마름, 2-마름, 3-보통, 4-조금 뚱뚱함, 5-뚱뚱함, 6-매우 뚱뚱함
종교	1-힌두교, 2-불교, 3-이슬람, 4-개신교, 5-카톨릭	
힌두교	1-종교가 힌두교인 경우, 0-기타	
불교	1-종교가 불교인 경우, 0-기타	
이슬람	1-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0-기타	
개신교	1-종교가 개신교인 경우, 0-기타	
카톨릭	1-종교가 카톨릭인 경우, 0-기타	

본 논문의 사용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의 변수들과 일관성이 있다. Wagle (2017)은 그의 연구에서 카스트, 종교(이슬람과 그 이외), 교육(읽고 쓸 줄 아는 가, 수학 기간), 도시 더미, 가계의 규모, 농업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Myrdal (1968)은 카스트 제도의 효과가 지역마다 매우 불균등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농촌과 도시, 그리고 지역마다, 또한, 소득, 사회적, 인종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의 분석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제안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V. 실증결과

### 1.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절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포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다. <표 3>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이고 있다. 한 가정의 가족은 평균적으로 5명 정도인데 최소 2명이고, 최대 21명인 가족도 있다. 이 중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는 0.36으로 세 가정에 1명 정도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송금 수입은 평균적으로 75,000Rs이고 최대치는 2,400,000Rs이다. 카스트의 평균은 2.8 정도로 나타나 중간값과 유사하다. 평균소득은 76,000Rs이고, 최대 소득은 1,000,000Rs이다. 구직여부를 보면 24%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1% 정도가 전업농부이고 8% 정도가 비전업농부이며, 도시와 시골에 사는 비율은 반반 정도이다. 평균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 정도이고, 84%의 사람들이 읽고 쓰는 능력이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평균보다 높은 3.56이 나와 평균 이상의 건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달간 음주한 일수는 이를 미만이고, 하루 평균 담배를 핀 개수는 0.31이어서 거의 담배를 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은 보통보다 약간 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힌두교가 94%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개신교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수	413	5.16	2.17	2	21
외국가족수	413	0.36	0.59	0	3
송금	413	0.75	1.66	0	24
카스트	412	2.80	1.69	1	5
소득	413	0.76	1.38	0	10
구직여부	413	0.24	0.43	0	1
전업농부	413	0.21	0.41	0	1
비전업농부	413	0.08	0.27	0	1
지역	413	0.50	0.50	0	1
최고학력	413	7.04	4.99	0	19
문맹여부	413	0.84	0.36	0	1
건강	413	3.56	0.61	1	5
음주	413	1.58	5.34	0	30
흡연	413	0.31	1.91	0	30
체중	412	3.01	0.73	1	6
힌두교	413	0.94	0.23	0	1
불교	413	0.01	0.09	0	1
이슬람	413	0.01	0.10	0	1
개신교	413	0.04	0.19	0	1
카톨릭	413	0.00	0.05	0	1

우선 카스트 제도가 신분상의 위치를 고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카스트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추정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카스트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흩어져 산다면 카스트 변수의 평균값이 3이 될 것이다. 그러나 Ward 1, 4, 6, 7에는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고, Ward 9에는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마을별 카스트 집단의 군집형태

본 표는 마을별로 서로 다른 카스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향을 가지는지를 보인다. 가장 낮은 카스트의 값은 1이고 가장 높은 카스트의 값은 5이다.

마을	N	평균	표준편차	H0: Mean=3
1	55	2.53	1.93	-1.81*
2	2	3.00	2.83	0.00
4	51	1.94	1.57	-4.82***
6	49	1.88	1.45	-5.41***
7	50	2.48	1.40	-2.62**
9	205	3.39	1.53	3.61***

주: \*  $p < .1$ , \*\*  $p < .05$ , \*\*\*  $p < .01$

〈표 5〉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 높은 카스트 사람들의 비율이 달라지는지 보고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카스트 평균값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은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이다. 도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을 획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주로 농촌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도시와 농촌의 카스트 집단의 차이

이 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거주하는 카스트 집단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인다.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H0: Mean=3
도시	207	3.36	1.53	3.42***
농촌	205	2.24	1.65	-6.59***

주: \*  $p < .1$ , \*\*  $p < .05$ , \*\*\*  $p < .01$

〈표 6〉은 각 카스트 별로 가족 중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보이고 있다. 모든 카스트에서 한 명 미만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장 낮은 계급인 Janajati는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만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

이 표는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가 카스트 별로 차이가 나는지 보고한다.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168	0.185	0.472	0	3
Shudra	39	0.538	0.790	0	3
Chhetri	116	0.517	0.582	0	3
Brahmin	89	0.427	0.620	0	2

집단 간 차이: F-value = 9.84\*\*\*

주: \* p<.1, \*\* p<.05, \*\*\* p<.01

〈표 7〉은 각 카스트 별로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송금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카스트인 Janajati 집단은 평균적으로 204,800 루피를 해외 송금으로 얻는 반면, 가장 높은 카스트인 Brahmin은 304,656 루피를 받는다. 역시 높은 카스트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입이 높은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의 결과와 종합해 보면 카스트가 높을수록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수입도 더 높은 직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표 7〉 연간 해외 송금 유입액

이 표는 각 카스트 별로 연간 해외에서 가족이 송금하는 소득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이고 있다.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25	204,800	86,049.8	0	600,000
Shudra	15	246,000	153,757.3	0	720,000
Chhetri	56	223,000	130,299.8	0	480,000
Brahmin	32	304,656	276,782.0	0	2,400,000

집단 간 차이: F-value = 7.26\*\*\*

주: \* p<.1, \*\* p<.05, \*\*\* p<.01

〈표 8〉은 사람들의 교육 정도가 카스트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이다.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스트가 낮을수록 교육을 받은 기간이 비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카스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낮은 카스트인 Janajati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맹 여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카스트에서 문맹률이 1/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카스트로 갈수록 문맹률이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스트와 교육 수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카스트와 교육 수준

이 표는 카스트에 따라 교육수준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이고 있다. 최고학력은 피설문자가 이수한 가장 높은 학력이고, 문맹 여부 변수의 값은 읽고 쓸 수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카스트	N	최고학력			문맹 여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Janajati	168	5.571	0	19	0.744	0	1
Shudra	39	6.385	0	17	0.846	0	1
Chhetri	116	7.836	0	17	0.948	0	1
Brahmin	89	9.146	0	18	0.899	0	1
집단 간 차이		F-value = 12.32***			F-value = 8.58***		

주: \*  $p < .1$ , \*\*  $p < .05$ , \*\*\*  $p < .01$

Borooah & Iyer(2005)는 인도에서는 교육 정도가 종교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대체로 이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표 9〉는 종교에 따라서 평균최고학력과 문맹의 정도가 다른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티카풀 지역은 힌두교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고, 타 종교를 믿는 표본수가 적어서 통계적 의미를 두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이슬람이나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에 따른 가치관이나 생활태도의 차이가 원인일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종교와 사회적 지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orooah & Iyer(2005)는 가계의 수입과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될 확률,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형

제간이 많은 아이들과 학교 등록률은 (-)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주어진 가계 재정 상황 하에서 교육시킬 인원이 많은 경우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이 여아들의 경우 남아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아들의 등록률이 남아들에 비해 낮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학생들의 등록률이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카스트 제도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교육에 영향을 미쳐 소득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현상과 일관성이 있다.

〈표 9〉 종교와 교육

이 표는 종교에 따라 교육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보이고 있다. 최고학력은 피설문자가 이수한 가장 높은 학력이고, 문맹 여부 변수의 값은 읽고 쓸 수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종교	N	최고학력		문맹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힌두교	389	7.093	4.973	0.848	0.359
불교	3	10.667	5.132	1.000	0.000
이슬람교	4	4.000	4.243	0.750	0.500
기독교	15	6.733	5.161	0.733	0.458
카톨릭	1	0.000	-	1.000	0.000
집단 간 차이		F-value = 1.30		F-value = 8.58***	

주: \* p<.1, \*\* p<.05, \*\*\* p<.01

〈표 10〉은 카스트와 직업 활동이 관련이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상위 카스트인 Brahmin 및 Chettri와 하위 카스트인 Shudra와 Janajati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업농부의 비율이 모든 카스트에서 30% 미만이고 전업농부가 아니면서 농사일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의 비율도 많아야 10% 정도로 나타나 대부분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카스트 별로 변수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상위와 하위 카스트를 대비하여 보면 상위 카스트일수록 전업 농부와 비전업농부의 비율이 적는데 이는 명백하게 각 카스트 별 직업의 형태를 정한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위 카스트인 Brahmin과

Chhetri은 10명 중 2명 내지 4명 정도인 반면 하위 카스트인 Shudra와 Janajati는 10명 중 2명 이하이다. 하위 카스트의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바로 곤란을 겪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지만 상위 카스트는 이러한 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카스트와 직업

이 표는 카스트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는지 또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 달라지는지를 보인다.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직 또는 구직활동 안하는 경우=1, 그 외 0; 전업농부=1, 그 외 0; 비전업농부=1, 그 외 0.

카스트	N	구직		전업농부		비전업농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Janajati	168	0.149	0.357	0.298	0.459	0.113	0.318
Shudra	39	0.179	0.389	0.231	0.427	0.179	0.389
Chhetri	116	0.371	0.485	0.103	0.306	0.026	0.159
Brahmin	89	0.258	0.440	0.180	0.386	0.025	0.208
집단 간 차이		F-value = 6.79***		F-value = 5.58***		F-value = 4.73***	

주: \* p<.1, \*\* p<.05, \*\*\* p<.01

〈표 11〉은 각 카스트 별 연간 비농업 소득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연간 비농업 소득이 각 카스트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카스트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위 두 개의 카스트와 하위 두 개의 카스트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고, 특히 최상위 카스트의 소득은 최하위 카스트 소득의 거의 3배에 육박한다. 흥미로운 것은 〈표 7〉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해외에서 송금하는 평균 금액이 연간 비농업 소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가정의 소득에 매우 중요하며 카스트의 등급에 따라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연간 비농업 소득

이 표는 카스트 별로 연간 비농업 소득이 차이가 나는지 보고한다.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168	43,226	82,047	0	400,000
Shudra	39	50,385	90,818	0	400,000
Chhetri	116	98,922	181,922	0	1,000,000
Brahmin	89	120,989	155,827	0	600,000

집단 간 차이: F-value = 8.24\*\*\*

주: \* p<.1, \*\* p<.05, \*\*\* p<.01

〈표 12〉는 카스트 별로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모든 변수에서 카스트 집단 사이에 건강 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건강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모든 카스트의 사람들이 보통보다는 건강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는 모든 카스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상위 두 개 카스트의 사람들이 하위 두 개의 카스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간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날짜 수는 카스트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트가 높으면 음주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더 많이 접했을 수 있고, 카스트의 문화가 음주에 대해 비우호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하위 카스트의 경우 다른 카스트에 비해 음주일수가 월등히 많아 이 집단의 생활이나 문화가 다른 카스트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무게에 대한 인지를 보면 최하위 카스트를 제외한 모든 카스트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가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하위 카스트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가 보통보다는 마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생활이 곤궁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 몸무게는 종종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표인데 이는 비만이 오히려 문제인 선진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표 12〉 건강과 카스트

이 표는 카스트에 따라 건강 상황이 다른지를 보이고 있다.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건강상황 1-매우 나쁨, 2-나쁨, 3-평균, 4-좋음, 5-아주 좋음. 음주일수=지난 30일간 한 잔이라도 음주를 한 날 수. 몸무게에 대한 인식 1-매우 말랐음, 2-말랐음, 3-보통, 4-조금 살이 찼음, 5-살찼음, 6-매우 살찼음.

카스트	N	건강 상황			음주일수			체중		
		평균	최소	최대	Mean	최소	최대	Mean	최소	최대
Janajati	168	3.488***	1	4	2.827	0	30	2.892*	1	5
Shudra	39	3.462***	2	5	0.974	0	30	3.154	2	5
Chhetri	116	3.603***	1	5	0.733	0	30	3.052	2	5
Brahmin	89	3.708***	2	4	0.629	0	15	3.124	1	6
집단 간 차이		F-value = 3.04**			F-value = 5.29***			F-value = 2.86**		

주: \*  $p < .1$ , \*\*  $p < .05$ , \*\*\*  $p < .01$

## 2. 카스트 제도의 경제·사회적 영향

〈표 13〉은 카스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의 범주를 경제적 측면, 교육적 측면, 보건 위생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직업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이 높은 카스트에 속할 가능성 높다. 또한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수가 더 많고, 농부가 아닌 사람이 카스트가 높은 경향이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교육을 받은 연한이 긴 사람들이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카스트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는 술과 담배를 덜 하고 체중이 높을수록 더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의 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이슬람교나 기독교보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카스트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족의 수는 낮은 카스트에 속할수록 농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더 많은 식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높은 카스트일수록 기독교를 유지시켜 주는 힌두교를 믿고 낮은 카스트일수록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가르침이나 제도를 주창하는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각각의 변수를 따로 분석한 전 절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3〉 카스트 OLS 회귀분석 결과

이 표는 카스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관련되는 변수를 경제, 교육, 보건, 사회의 범주로 나누어 OLS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t
경제	소득	0.189***	0.059	3.20	0.002
	구직여부	0.564***	0.201	2.81	0.005
	외국가족수	0.530***	0.147	3.61	0.000
	비전업농부	-0.562**	0.262	-2.15	0.032
교육	도시	0.593***	0.178	3.33	0.001
	최고학력	0.069***	0.016	4.25	0.000
보건	건강	-0.177	0.126	-1.41	0.160
	음주	-0.031***	0.012	-2.67	0.008
	흡연	-0.058***	0.018	-3.29	0.001
	체중	0.210**	0.105	2.00	0.046
사회	가족수	-0.056*	0.033	-1.71	0.088
	이슬람	-1.276***	0.157	-8.11	0.000
	개신교	-0.945***	0.307	-3.08	0.002
	상수	1.987***	0.525	3.78	0.000
$R^2 = 0.281, F\text{-value} = 52.13^{***}$					

주: \* p<.1, \*\* p<.05, \*\*\* p<.01

〈표 14〉는 카스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카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추정 한 결과이다. 역시 독립변수의 범주를 경제적 측면, 교육적 측면, 보건 위생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Janajati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가족들의 수가 많을수록 Shudra 계급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보건 측면에서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슬람교나 기독교 대신 힌두교를 믿을수록 Shudra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카스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카스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하여 Janajati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비율이 가장 낮고 동시에 다른 종교를 믿을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Chhetri와 Brahmin 계급의 결과를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더 높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직업을 찾고 있지 않을수록 이 두 카스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수가 더 많고, 농사일을 하지 않을수록 높은 카스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교육을 받은 연한이 더 길수록 Chhetri 카스트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는 술과 담배를 덜 하고 체중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보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위 두 카스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표 1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표는 카스트 변수를 범주 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기본이 되는 카스트는 Janajati이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t
Caste = Shudra					
경제	소득	0.110	0.187	0.59	0.555
	구직여부	0.187	0.550	0.34	0.734
	외국가족수	1.138***	0.371	3.07	0.002
	비전업농부	0.568	0.495	1.15	0.251
교육	도시	0.022	0.467	0.05	0.962
	최고학력	0.044	0.036	1.21	0.228
보건	건강	-0.314	0.325	-0.97	0.334
	음주	-0.070	0.071	-0.98	0.327
	흡연	-0.043	0.081	-0.54	0.592
	체중	0.636***	0.207	3.08	0.002
사회	가족수	0.005	0.085	0.05	0.956
	이슬람	-15.596***	0.811	-19.23	0.000
	개신교	-15.060***	0.399	-37.71	0.000
	상수	-2.899**	1.411	-2.05	0.040
Caste = Chhetri					
경제	소득	0.283**	0.140	2.02	0.043
	구직여부	0.951***	0.362	2.63	0.009
	외국가족수	1.176***	0.326	3.61	0.000
	비전업농부	-1.463**	0.702	-2.09	0.037

교육	도시	1.988***	0.352	5.65	0.000
	최고학력	0.082***	0.032	2.58	0.010
보건	건강	-0.677***	0.261	-2.60	0.009
	음주	-0.069	0.064	-1.08	0.279
	흡연	-0.102	0.110	-0.93	0.355
	체중	0.407*	0.208	1.95	0.051
사회	가족수	-0.049	0.077	-0.64	0.525
	이슬람	-13.997***	0.806	-17.37	0.000
	개신교	-0.368	0.683	-0.54	0.590
	상수	-1.193	1.014	-1.18	0.239
Caste = Brahmin					
경제	소득	0.406***	0.135	3.00	0.003
	구직여부	0.972**	0.401	2.42	0.015
	외국가족수	1.118***	0.327	3.42	0.001
	비전업농부	-0.492	0.593	-0.83	0.408
교육	도시	0.134	0.341	0.39	0.694
	최고학력	0.137***	0.036	3.79	0.000
보건	건강	-0.145	0.249	-0.58	0.562
	음주	-0.095*	0.053	-1.79	0.073
	흡연	-0.238	0.220	-1.09	0.277
	체중	0.493**	0.222	2.22	0.026
사회	가족수	-0.117	0.074	-1.58	0.113
	이슬람	-15.278***	0.770	-19.85	0.000
	개신교	-15.120***	0.440	-34.34	0.000
	상수	-2.616**	1.147	-2.28	0.023

Pseudo R<sup>2</sup> = 0.281

주: \* p<.1, \*\* p<.05, \*\*\* p<.01

네팔은 빈곤률이 아직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이 주요 관심 변수이다 (CBS, 2011a). <표 15>는 카스트 제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카스트 변수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함께 포함시켜 분석한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을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카스트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와

네팔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아직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Dreze & (2001)이 낮은 카스트의 아이들은 원천적 불리함(intrinsic disadvantage)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재산, 부모의 교육 정도와 같이 카스트 이외의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고 보아도 낮은 카스트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확률이 낮다.

〈표 15〉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표는 소득을 종속변수로 놓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t
카스트	0.114***	0.037	3.10	0.002
구직여부	-1.034***	0.113	-9.19	0.000
외국가족수	-0.161	0.127	-1.28	0.203
비전업농부	-0.361**	0.153	-2.37	0.018
도시	0.825***	0.142	5.79	0.000
최고학력	0.053***	0.011	4.89	0.000
건강	0.214**	0.100	2.13	0.033
음주	0.010	0.008	1.17	0.243
흡연	-0.008	0.021	-0.39	0.693
체중	0.106	0.106	1.00	0.318
가족수	0.042	0.064	0.66	0.510
이슬람	-0.075	0.174	-0.43	0.665
개신교	0.190	0.224	0.85	0.396
상수	-1.334**	0.636	-2.10	0.037

$R^2 = 0.352$ , F-value = 12.58\*\*\*

주: \*  $p < .1$ ,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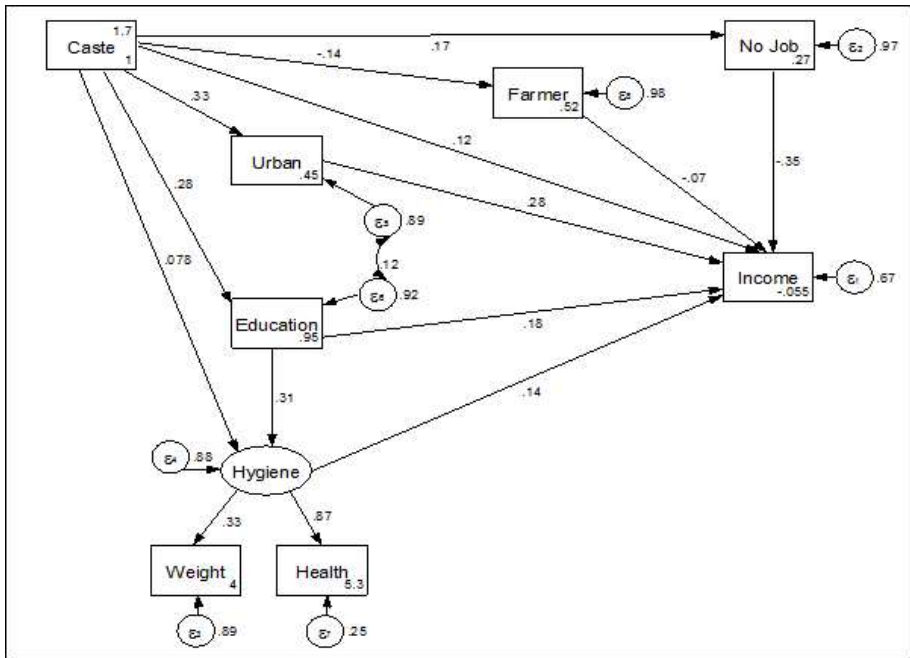
여타 독립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로는 현재 직업이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낮고, 농업에 종사할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살거나 건강이 좋으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 소득과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Borooah & Iyer(2005)의 연구와 일관성이 있다. 이들은 Dalit 가정의 평균수입은 힌두 가정의 평균수입의 57%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학생의 등록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입이 낮으므로 학교를 보내기가 어렵고, 이

로 인해 낮은 교육 수준이 미래의 수익 창출 여력을 잠식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경제, 교육, 보건, 사회 관련 변수들이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각 관계의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 결과인데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동일한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sup>1)</sup>

〈그림 1〉 소득 결정 구조방정식

본 그림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한다. 카스트 제도가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경제, 교육, 보건, 사회 측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인다.



주: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Caste=카스트, Urban=지역, Education=최고학력, Weight=체중, Health=건강, Farmer=비전업농부, No Job=구직여부, Income=소득.

1)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보면, 절대적합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값이 0.115로 기준치 0.05보다 높다. 증분적합지수인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값은 각각 0.827, 0.628로 나타나 일반적 기준치인 0.9 이하이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카스트는 사는 지역, 교육, 보건, 직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 각 가정의 소득 수준이 달라진다. 높은 카스트 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농부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소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낮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건강 상태가 높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다. 더구나 이러한 간접적 경로에 추가하여 카스트 변수 자체도 소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카스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측면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네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도 더 좋아서 하위 카스트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열등해지고 이것이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져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 변화

Borjas(1994)와 Darity & Mason(1998)은 설사 카스트 제도 자체가 철폐된다 고 하더라도 낮은 교육과 직업적 지위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카스트에 근거한 노동의 분할이 영속될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 카스트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본 절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설 2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Borooah & Iyer(2005)는 부모가 문맹이 아닌 경우와 같이 학생들에게 우호적 교육 환경에서는 종교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공동체 규범의 영향력이 낮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교육 등을 통해 견고한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6>은 각 카스트의 교육투자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투자는 각 카스트에 대해 최고학력과 최고학력의 평균 사이의 차이를 구한 후 이 값이 양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해당 카스트의 평균 학력에 비해 각 응답자가 얼마나

더 교육을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적 신분을 탈출하기 위해 더 교육을 받는다면 이 값이 더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에 비해 높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낮은 카스트일수록 교육투자가 더 높은데 특히 가장 낮은 Janajati의 교육투자의 평균이 다른 카스트에 비해 뚜렷이 크고 최대값도 압도적으로 높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아도 하위 두 집단의 교육투자가 상위 두 집단의 교육투자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다. 이는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주어진 카스트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16〉 카스트와 교육 투자

이 표는 카스트에 따른 교육투자의 차이를 보고한다. 각 카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투자 변수를 계산한다. 교육투자 = 최고학력 - 최고학력의 평균. Panel A는 각 카스트별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이고 Panel B는 전체 집단간 그리고 특정 집단간 분산분석 결과이다. 교육투자 변수가 양인 응답자 가정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83	4.309	2.620	0.429	13.429
Shudra	20	3.265	2.540	0.615	10.615
Chhetri	75	3.004	2.360	0.164	9.164
Brahmin	59	3.023	2.429	0.854	8.854

Panel B. 분산분석

집단간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3	87.174	29.058	4.70***	0.003
잔차	233	1,439.7	6.179		
계	236	1,526.9	6.470		

(Janajati+Shudra)와 (Chhetri+Brahmin)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1	69,612	69.612	11.23***	0.000
잔차	235	1,457.3	6.201		
계	128	1,526.9	6.470		

주: \* p<.1, \*\* p<.05, \*\*\* p<.01

Bros(2014)는 경제력의 향상이 낮은 카스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낮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열등한 인지 부담을 상쇄시켜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

면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더 경제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현재 속한 국가에서의 카스트 질서가 너무 공고하다면 이러한 불리점이 없거나 더 적은 장소로 이동을 선택할 것이다. <표 17>은 각 카스트에 대해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고 이에 대한 ANOVA 분석을 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 외국에서 일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평균적으로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수가 적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외국에서 일자리를 잡아 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낮은 카스트에 속하는 가정들이 더 많은 가족구성원이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Janajati의 경우 Shudra를 제외하고는 다른 높은 카스트 집단의 가정보다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수가 더 높다. 또한 Shudra는 상위의 카스트보다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수가 월등히 높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간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 낮은 두 카스트를 합한 집단과 높은 두 카스트를 합한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면 낮은 두 카스트를 합한 집단의 외국가족수가 높은 두 카스트를 합한 집단의 외국가족수보다 유의하게 높다. 따라서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 제도가 덜 강한 해외에서 활동함으로써 불리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역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17> 카스트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의 비율

이 표는 카스트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의 수가 다른지 보고한다. Panel A는 각 카스트별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이고 Panel B는 전체 집단간 그리고 특정 집단간 분산분석 결과이다. 외국 가족수가 양인 응답자 가정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Panel A.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26	1.192	0.491	1	3
Shudra	15	1.400	0.632	1	3
Chhetri	56	1.071	0.322	1	3
Brahmin	32	1.188	0.397	1	2

Panel B. 분산분석  
집단간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3	1.354	0.451	2.54*	0.060
잔차	125	22.228	0.178		
계	128	23.581	0.184		

(Janajati+Shudra)와 (Chhetri+Brahmin)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1	0.669	0.669	3.71*	0.056
잔차	127	22.912	0.180		
계	128	23.581	0.184		

주: \*  $p < .1$ , \*\*  $p < .05$ , \*\*\*  $p < .01$

〈표 18〉은 유사한 맥락에서 해외로부터의 송금과 국내의 소득을 비교하여 해외로부터의 소득이 카스트에 따라 얼마나 중요도가 다른지를 보고한다. 해외송금을 국내 소득과 비교한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카스트가 낮을수록 예외 없이 국내의 소득에 비해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더 중요성을 띤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카스트와 해외 송금의 비율

이 표는 카스트에 따라 해외 송금이 국내 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얼마나 더 다른지 보고한다. 해외 송금비율 = 송금/비농업소득.

카스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Janajati	71	0.925	4.558	0	36.0
Shudra	14	0.774	1.508	0	5.3
Chhetri	48	0.710	2.195	0	12.0
Brahmin	42	0.628	2.588	0	16.0

〈표 19〉는 카스트별로 힌두교를 믿는 비율과 개신교를 믿는 비율, 그리고 개신교 변수를 사용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스트와 관계 없이 힌두교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스트 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Janajati의 경우 다른 세 카스트와 비교해서 힌두교를 믿는 비율이 월등히 낮고,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Janajati 카스트의 독특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며, 기존의 힌두 문화로 정립된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불이

익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9〉 카스트와 종교

이 표는 카스트와 종교 사이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Panel A는 각 카스트의 변수의 평균, 최소,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Panel B는 개신교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Panel A.

카스트	N	힌두교			개신교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Janajati	168	0.887	0	1	0.071	0	1
Shudra	39	1.000	1	1	0.000	0	0
Chhetri	116	0.974	0	1	0.026	0	1
Brahmin	89	0.989	0	1	0.000	0	0

Panel B. 개신교 분산분석  
집단간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3	0.389	0.130	3.76**	0.011
잔차	408	14.065	0.034		
계	411	14.454	0.035		

Janajati와 Shudra 차이

	자유도	제곱합	제곱평균	F-비	p-값
모형	1	0.161	0.161	2.97*	0.086
잔차	205	14.065	0.054		
계	206	11.143	0.055		

주: \* p<.1, \*\* p<.05, \*\*\* p<.01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현상 유지가 되거나 또는 공고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위 카스트의 신분차별에 대한 극복 방안에 의해 점차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VI. 결론

네팔 정부는 1963년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차별을 불법으로 천명하였다. 그

러나 카스트 제도는 네팔 사회의 오랜 역사, 문화, 종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법임이 천명되었어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행이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네팔의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아직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카스트 제도는 아직도 네팔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낮은 카스트에 속한 집단은 소득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낮은 소득은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을 악화시켜 다시 열등한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 소득을 낮추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도 낮은 카스트 계급은 음주와 흡연 회수가 더 높고 전반적 건강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위 카스트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힌두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팔 사회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카스트 제도이다. 카스트 제도는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 직업, 건강, 주거 지역의 차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농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할 확률이 더 높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차별 상황의 근저에 카스트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anerjee & Knight(1985)가 주장하는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이 영속적이 되는 두 가지 경로와 일관성이 있다. 첫째는 카스트에 의한 등급화는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더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소홀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특정 고용 분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이 정보나 네트워크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사 카스트 제도 자체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교육과 직업적 지위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카스트에 근거한 노동의 분할이 영속될 수 있다(Borjas, 1994; Darity & Mason, 1998).

그러나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낮은 카스트 계급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노력에 의하여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카스트가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네팔의 카스트 제도의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낮은 카스트 계층일수록 가족구성원이 해외에서 일하는 숫자가 많고 해외로부터의 송금소득도 국내 소득에 비해 더 높다.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도 낮은 카스트 계급은 기득권 세력의 종교인 힌두교의 대안으로 개신교를 믿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카스트와 같은 왜곡된 사회구조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저해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네팔 정부는 카스트 제도의 폐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카스트 제도의 폐해가 상당 부분 없어질 때까지 인위적으로 정부나 마을의 자치 기구에 낮은 카스트 출신들이 일정 비율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스트 제도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조정이 일어나서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Bros(2014)는 편견이나 차별의 장기적인 내재화가 어떻게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가를 보여 주는데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때 자존감의 손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에 추동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nitha, B.K. (2000). Village, Caste and Education. New Delhi: Rawat Publications.
- Banerjee, B., & Knight, J. B. (1985). Caste discrimination in the Indian urban labou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7(3), 277-307. doi:10.1016/0304-3878(85)90094-X
- Banerjee-Dube, Ishita. (2014). Caste, race and difference: The limits of

- knowledge and resistance.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62(4): 512-530.
- Bathran, R. (2011). Indian sanitat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6(51), 34-37.
- Borjas, G. J. (1994). Long-run convergence of ethnic skill differentials: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the great migr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4), 553-573. doi:10.1177/001979399404700403
- Borooah, Vani K. and Iyer, Sriya. (2005). Vidya, Veda, and Varna: The influence of religion and caste on education in rural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8), 1369-1404, DOI: 10.1080/00220380500186960.
- Bros, Catherine. (2014). The Burden of Caste on Social Identity in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0(10): 1411-1429. <http://dx.doi.org/10.1080/00220388.2014.940908>.
- CBS. (2011a). Poverty in Nepal. Kathmandu: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Darity, W. A., & Mason, P. L. (1998). Evidence on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Codes of color, codes of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2), 63-90. doi:10.1257/jep.12.2.63
- Dave, The decaying decadence of Nepal's caste system. The Longest Way Home. Updated on May 30<sup>th</sup>, 2017. <https://www.thelongestwayhome.com/blog/nepal/nepalese-caste-system-culture-in-nepal-today/>.
- Deshpande, A. (2011). The grammar of caste: Economic discrimination in contemporary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Dreze, J. and Kingdon, G.G. (2001). School Participation in Rural India.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5: 1-24.
- Gurung, Harka. (2005). The Dalit Context, Occasional Papers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Vol. 9: 1-21. DOI: <http://dx.doi.org/10.3126/opsa.v9i0.1133>.

- Jabbi, M.K. and Rajyalakshmi, C. (2001). 'Education of Marginalised Social Groups in Bihar' in A. Vaidyanathan and P.R. Gopinathan Nair (ed.) *Elementary Education in Rural India: A Grassroots View, Strategy for Human Development in India*. Vol.2, New Delhi: Sage Publications. 395-458.
- Jodhka, Surinder. (2016). Ascriptive hierarchies: Caste and its reproduction in contemporary India. *Current Sociology*. 64(2): 228-243.
-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2012).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2012 update*. WHO and UNICEF.
- Lamba, Sneha and Spears, Dean. (2013). Caste, 'Cleanliness' and Cash: Effects of Caste-Based Political Reservations in Rajasthan on a Sanitation Prize.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9(11). 1592-1606. <http://dx.doi.org/10.1080/00220388.2013.828835>.
- Madan, T. N. (1969). Caste and Developmen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5): 285-287, 289-290.
- Mainali, R., Jafarey, S., and Montes-Rojas, G. (2017). Earnings and caste: An evaluation of caste/ethnic wage differentials in the Nepalese labou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3(3): 396-421.
- Montes-Rojas, G., Siga, L., and Mainali, R. (2017). Mean and quantile regression Oaxaca-Blinder decompositions with an application to caste discrimination.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5: 245-255. DOI 10.1007/s10888-017-9355-9.
- Myrdal, Gunnar.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I, II & III). Pantheon. New York. 1968.
- Naregal, Veena. (2010). Performance, caste, aesthetics: The Marathi sangeet natak and the dynamics of cultural marginalisation.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44(1&2): 79-101.
- Sainath, P. (1996). *Everybody Loves a Good Drought: Stories from India's*

- Poorest Districts. New Delhi: Penguin.
- Spears, D. (2013). How much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 height can sanitation explain? Working paper. Princeton University.
- Thorat, S. and Newman, K. S. (2010). Blocked by caste: Economic discrimination in moder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Wagle, Udaya R. (2017). The Caste/Ethnic Bases of Poverty Dynamics: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ronic and Structural Poverty in Nepal.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3(9): 1430-1451. <https://doi.org/10.1080/00220388.2016.1224850>.



## The Socio-economic Impact and Change of Caste System in Nepal

Chang-Soo Kim  
Yonsei University, Korea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aste system in Nepal. Although caste system has been proclaimed illegal in 1963, it still exerts a vast influence in Nepalese society regarding economic, educational, medical, and social dimensions. While higher caste people tend to live in urban area, lower cast people seem to live in rural area engaging in farming activities that do not require any special knowledge to perform. Although education is open to everybody in all castes and free for primary education, lower caste people have on average a lower level of education. A lower level of education is related to a lower level of income, as evidenced by a smaller amount of remittance income for a lower caste family. It seems to be caused by an inferior educational achievement where lower caste people do not receive proper education that allows them to learn knowledge and skill necessary for foreign jobs. In addition, lower caste people have a worse health condition. Lower caste people do not seem to pay enough attention to health due to poverty and ignorance caused by a lower level of education, which in turn leads to a lower level of income. However, the influence of cast system is getting weaker decreasing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and a negative impact in society. People in lower cast tend to invest more in education and have more family members work in foreign countries. The remittance of lower caste family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at of higher caste family when compared with domestic income. Lower caste people also tend to believe more in Christian Protestant than higher caste peopl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lower caste people trying to avoid a religion that discriminates against them.

**[Key Words: caste, Nepal, discrimination, education, income]**

---

논문접수일: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단독저자: 김창수(Chang-Soo Kim)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재무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하고(논문: Essays on Tax-timing Options, 1991),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사회적 금융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내부자본시장의 기능과 경제적 효과" (2018), "Smallholder Commercialization in Ethiopia: Market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2016, 공저), "Internal Capital Markets in Business Groups: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5, 공저), "Is Business Group Structure Inefficient: A Long-Term Perspective" (2012) 등이 있다 (kimc@yonsei.ac.kr).